

아마 바둑도 한국이 최강

한국 아마 바둑이 제1회 CMC배 아시아아마바둑 10강전을 훑었다. 세계 최정상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는 프로기사들에 이어 아마 바둑도 최강의 실력을 과시한 것이다.

바둑이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바둑의 스포츠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번 한국 아마 선수들이 국가 대무 선전에 큰 의미를 갖는다.

한국기원은 4일 “지난달 막을 내린 이 대회에서 한국의 김남훈, 송홍석, 강창배 아마 7단이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김남훈은 지난달 29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8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4, 5라운드에서 동료선수인 송홍석, 강창배를 차례로 물리치고 5전 전승으로 단독선수로

나서면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다. 이어 29일 벌어진 6, 7, 8라운드에서 전승을 거두 승리를 확정지었다.

김남훈은 지난 5월 전주에서 벌어진 제2회 전북은행장배 아시아 아마바둑선수권대회에서도 우승했다. 이번 CMC배에서도 우승하며 명실상부한 아마 바둑 ‘아시아의 제왕’된 것이다.

시상식에서 김남훈은 “이회 대회에서 우승해 무엇보다 기쁘다”면서 “대만기원 연구생들 실력이 한국기원 연구생 못지 않았는데, 한국도 지속적으로 아마 대회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훈에게 평한 송홍석이 최종 7승2패로 2위, 김남훈, 송홍석에게 진 강창배가 6승2패로 3위에 올랐다.

주최국인 대만은 라이위청 아마 7단이 5승3패로 4위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이번 대회 최고령자인 일본의 히로노리

‘제1회 CMC배 아시아아마바둑 10강전’

김남훈, 송홍석, 강창배 1, 2, 3위 훑쓸어

주최국 대만팀 라이위청 7단은 4위 그쳐

(82) 아마 8단은 5승3패로 6위를 기록했다. 최연소 선수인 만의 양보웨이(10) 아마 5단은 4승3패로 18위에 올랐다.

김남훈, 송홍석, 강창배는 상과 함께 각각 우승 상금 5천달러, 준우승 상금 3천달러, 3위 1천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이외에도 랭킹 10위까지 각각 3위 1천달러, 4위~7위 500달러, 8위~10위 100달러 상금이 수여됐다. 이번 대회의 모든 대국은 각자 제한 시간 30분에 30조 초읽기 3회로 진행됐다.

한국기원 오규철 프로 9단은 “학교 스포츠가 강해야 성인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내 듯, 아마는 프로 바둑의 첫줄 역할을 한다”면서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아마 바둑대회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아마 대회에도 바둑팬들의 성원과 관심이 절실히”고 당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세돌 9개월 연속 랭킹 1위

박정상 9위→6위로 상승

이세돌 9단이 무려 9개월 동안 랭킹 1위 자리를 지켜냈다. 이세돌은 지난달 6승2패의 성적을 거두면서 15,055점을 획득해 9개월 연속(2007년 11월~2008년 6월) 1위를 차지했다.

1위부터 5위까지는 5월 랭킹과 순위 변동이 없는 가운데 10승2패를 거둔 박정상 9단이 9위에서 6위로 세 계단 뛰어올랐다. 강동윤 7단도 7위로 순위를 한 계단 끌어올렸다.

50위권 안에서는 8연승을 거둔 이현호 7단이 36위에 오르며 50위권 진입에 처음 성공했다. 5승2패를 거둔 한종진 7단이 6월 보다 무려 15계단 상승하며 47위에 올랐다.

반면 여자 기사들의 부진은 계속됐다. 조혜연 7단이 51위에 오르는데 그쳤다. 지난 2005년 8월부터 발표하기 시작한 한국기원 월간 랭킹에서 여성 기사가 50위권 내에 한명도 들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비바둑협회장배 바둑대회 성료

광주시비바둑협회(회장 고경주)는 지난달 29일 염주체육관에서 제2회 광주시비바둑협회 회장배 바둑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아마최강부, 일반부, 초등최강부, 여성부 등 12개 부문에서 500여명의 아마 선수들이 자웅을 겨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명품 바둑시장’ 열린다

바둑인 애장품 기증받아 내달 20일 경매 행사

유명 프로기사들의 흔이 담긴 명품 바둑용품을 전문적으로 살 수 있는 경매장이 생겼다.

한국기원과 부동산경매회사인 지지옥션은 프로기사들이 소장하고 있는 애장품, 바둑용품, 서화작품 등을 기증받아 일반인들에게 경매하기로 했다. 지지옥션은 지지옥션에 유류대 시니어연승대전에 쓰인 바둑판들이 더욱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원은 지난해에도 제1기 지지옥션에 유류대 시니어대학전 청설기념으로 본선대국에 쓰인 모든 바둑판에 대국자의 사인을 받아 경매를 했었다. 문의 02-711-9114. /오광록기자 kroh@

한 프로기사들의 사인이 담긴 바둑판이 매물로 나오고, 수익금 전액은 바둑 꿈나루 육성을 위해 어린이기전신설에 쓰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초반 차민수 4단의 5연승에 맞서 여류팀 이민진 5단의 4연승, 이후 시니어팀 김종수 6단의 4연승을 거두는 등 흥미진진한 연승행진으로 많아 당시 대국에 쓰인 바둑판들이 더욱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원은 지난해에도 제1기 지지옥션에 유류대 시니어대학전 청설기념으로 본선대국에 쓰인 모든 바둑판에 대국자의 사인을 받아 경매를 했었다. 문의 02-711-9114. /오광록기자 kroh@

국내 프로기사 숨 1,200단 돌파

한국기원 소속 231명 합계

日 2,661단···中은 통계 없어

한국기원에 소속된 프로기사들의 단수의 총합이 1천200단을 돌파했다. <표 참고>

지난달 3일 김주호, 진시영, 김승재 등 3명이 승단하면서 1천199단이 됐고 같은달 27일 벌어진 제4기 원의배 십단전 예선에서 이상훈 6단이 이슬아 초단에게 승리해 7단으로 승단함으로써 총 1천200단이 됐다.

이로써 고조남철 9단이 1950년 6월 27일에 한국 프로로서의 사발점이 된 단위결정전을 개최해 프로기사 단위가 결정된 이래 꼭 58년째 되는 날에 1천200단을 돌파하게 된 것이다.

현재 한국의 프로기사는 총 231명이며 이 중 9단이 47명으로 가장 많고 8단이 17명으로 제일 적다. 국내 프로기사들의 평균 단위는 5.2단.

한편 일본의 프로기사 수는 일본기원이 318명, 관서기원이 120명으로 원이 318명, 관서기원이 120명으로 총 438명이며, 총단위는 일본기원(1천912단)과 관서기원(749단)을 합쳐 2천661단이며 평균 단위는 6단이다.

한국기원 소속	
단위	기사수
9단	47명
8단	17명
7단	18명
6단	25명
5단	24명
4단	23명
3단	25명
2단	26명
초단	26명
총 1,200단	231명

일본기원 소속	
단위	기사수
9단	76명
8단	37명
7단	48명
6단	37명
5단	34명
4단	21명
3단	17명
2단	21명
초단	27명
총 1,912단	318명

일본관서 소속	
단위	기사수
9단	36명
8단	14명
7단	13명
6단	18명
5단	9명
4단	5명
3단	7명
2단	10명
초단	8명
총 749단	120명

한국기원 소속 231명 합계

한국기원 소속 231명 합계

日 2,661단···中은 통계 없어

한국기원 소속 231명 합계

한국기원 소속 231명 합계